

## “함정”의 작품으로서의 Pope의 “Elegy”

姜 大 虔

Pope의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는 독자를 당혹케 하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가 발표된 후 1세기 이상을 두고 그것이 읊고 있는 슬픈 사연의 주인공인 “불운한 부인”이 실존인물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부인”이 실지로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을 수많은 독자들이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시 자체가 이 이름없는 부인을 Pope가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음은 이 시의 마지막 시행들인

Ev'n he, whose soul now melts in mournful lays,  
Shall shortly want the gen'rous tear he pays;  
Then from his closing eyes thy form shall part,  
And the last pang shall tear thee from his heart,  
Life's idle business at one gasp be o'er,  
The Muse forgot, and thou below'd no more! (77~82)

지금 슬픈 노래로 마음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도  
곧 그 자신이 지금 흠뻑 쏟아내는 것과 같은 눈물을 바라리라.  
그젠 그의 달치는 두 눈에서 그대 모습은 사라지고,  
마지막 고통이 그의 마음에서 그대를 떼어내리.  
부질없는 인생사도 단 한번의 큰 숨으로 끝나고  
詩神이 잊혀지니 그대를 사랑하는 자 더 없어라!

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리하여 1717년 6월 16일 John Caryl은 Pope에게 보낸 서간에서

Your works are my daily lecture, and with what satisfaction I need not repeat to you. But pray, in your next, tell me who was the unfortunate lady you address a copy of verses to. I think you once gave me her history, but it is now quite out of my head.<sup>1)</sup>

라고 말하고 있지만 Pope가 이에 시원스럽게 답하지 않았음은 Caryl이 8월 18일자 서간에서

You answer not my question who the unfortunate lady was that you inscribe a copy of verses to in your book. I long to be re-told her story, for I believe you already told me formerly; but I

1) Quoted in Robert K. Root, *The Poetical Career of Alexander Pope* (Gloucester, Mass., 1962), p. 89.

shall refer that, and a thousand other things more, to chat over at our next meeting, which I hope draws near.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서간에 대해서 Pope는 8월 20일에 답장을 썼지만 불운한 부인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sup>2)</sup> “What would I not give to know who she was and the remarkable circumstances of her history. But I presume too far, and must ask Your Pardon for my impertinence.”<sup>3)</sup>라는 1728년 Boston의 한 독자로부터 Pope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불행한 부인에 관한 호기심은 곧 Pope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호기심에 못지 않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Anecdotes, Observations, and Characters of Men*에서도 이 시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Joseph Spence와 같은 Pope와 아주 가까운 측근자도 Pope로 부터 “부인”의 정체에 관한 시원한 해답을 얻지는 못한 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Pope가 독자를 호기심의 함정에 끌어드려 그들을 Tantalus처럼 애타고 괴롭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리하여 “부인”의 정체에 관한 문제는 Pope를 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집념처럼 되었으며 이점은 우리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두드러진 성격을 조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비평가들의 소론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William Ayre는 Pope가 죽은 이듬해인 1745년에 拙速으로 써낸 *Memoirs of the Life and Writings of Alexander Pope, Esq.*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is lady seems to have been a particular favorite of our poet. Whether he himself was the person she was remov'd from I am not able to say, but whoever reads his verses to her memory, will find she had a very great share in him.... But very young she contracted an acquaintance, and afterward some degree of intimacy, with a young gentleman, who is only imagined, and, having settled her affections there, refused a match proposed to her by her uncle. Spies being set upon her, it was not long before her correspondence with her lover of lower degree was discovered, which, when taxed with by her uncle, she had too much truth and honour to deny.<sup>4)</sup>

Ayre의 말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시 자체를 토대로 하여 날조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Ayre의 *Memoirs*에는 출판사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이 책과 같은 해에 나온 “Remarks on Squire Ayre’s *Memoirs*”라는 표제의 팬플렛은 그 이유를 *Memoirs*가 Edmund Curll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출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Edmund Curll은 그 당시 작품의 해적판이나 가짜 전기——특히 명사의 치부를 들어내는——를 출판하여 돈벌이를 하던 악질 출판업자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Ayre 즉 Curll의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으며 “부인”의 시체가 매장된 과정을 시 자체의 내용을 토대로 양염을 쳐서 꾸며낸 다음의 말도 마찬가지이다.

2) *The Works of Alexander Pope*, ed. John W. Croker and Whitwell Elwin, 10 vols., II (1871; rpt. New York, 1967) p. 204n. 이하 E-C II로 약칭함.

3) Quoted in Ian Jack, “The Elegy as Exorcism,” in *Augustan Worlds*, ed. J.C. Hilson et al. (New York, 1978), p. 69.

4) Quoted in E-C II, p. 197.

5) *Ibid.*, p. 201n.

The severity of the laws of the place where she was in denied her christian burial, and she was buried without solemnity, or even any to wait on her to her grave except some young people of the neighbourhood, who saw her put into common ground, and strewed her grave with flowers, which gave some offence to the priesthood, who would have buried her in the highway, but it seems their power there did not extend so far.<sup>6)</sup>

Joseph Warton은 이 문제를 1756년에 나온 *An Essay on the Writings and Genius of Pope*에서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Warton의 해석을 살피기 전에 1751년에 나온 Warburton편의 Pope전집에 실린 다음과 같은 이상스러운 주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See the Duke of Buckingham's verses to a lady designing to retire into a monastery compared with Mr. Pope's Letters to Several Ladies, p. 206. She seems to be the same person whose unfortunate death is the subject of this poem. P.

“P.”라는 것은 Pope 자신이 붙인 주, 아니면 Pope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토대를 둔 주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문장에서 사용된 “seems”라는 말은 이상하다. 요사이 우리 나라 젊은 여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것 같아요”라는 별로 의미 없이 말끝을 맺는 formula라면 몰라도 이와 같이 정보를 주었다가 철회하는 듯한 표현은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한다. 그렇다면 첫째 문장은 Pope의 문장이고 둘째 문장은 Warburton의 첨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타당성이 있는 해석은 이 주 전체를 Warburton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Pope 자신의 주라고 보고 여기서 Pope는 “seems”라는 모호한, 그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로서는 모순되는 말을 사용하여 불운한 여인이 누구인가를 탐지하려는 독자의 마음을 애타게하고 괴롭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sup>7)</sup>

우리가 이 두가지 해석의 그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이 주에서 제시된 시나 서간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Duke of Buckingham의 시는 Pope 자신이 편찬하여 1723년에 내놓은 *The Works of His Grace The Duke of Buckingham*의 제 1권에 수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상투적인 시에 알맞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시작되고 있다.

What breast but yours can hold the double fire  
Of fierce devotion, and of fond desire?<sup>8)</sup>

이 시와 Pope의 “Elegy”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사성도 발견할 수 없다. Buckingham의 시에서 읊어지고 있는 여자는 그의 정부인데, John Sheffield, Duke of Buckingham (1648~1721)은 1717년에 그의 정부를 위한 애인이 되기에는 너무 늙은 노인이다.<sup>9)</sup> 1737년의 眞版

6) Ibid., pp. 197-98.

7) Cf. “The note...must remain inscrutable as well as inaccurate since, despite its “P.” it cannot wholly be Pope's: Pope would not refer to himself as “Mr. Pope,” nor would he use the expression “seems to” (if he wanted to deceive, this would have defeated his object by showing him to want to.” *The Twickenham Edition of the Poems of Alexander Pope*, 11 vols., II: *The Rape of the Lock and Other Poems*, ed. Geoffrey Tillotson, 3rd edn (London, 1962), p. 355n. 이하 *Twick*. II로 약칭함.

8) Quoted in Jack (See Note 3), p. 70. 이 부분은 Ian Jack의 소론에 힘입은 바 크다.

9) Root, p. 90.

『서간집』(authorized *Letters*; quarto版)의 206페이지에서 “Letters to Several Ladies”를 찾을 수는 없고 그 대신 86페이지에는 Duke of Buckingham의 시에서 옮겨지고 있는 부인처럼 수녀원으로 들어갈 것을 고려중인 어떤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다. 목차에서 이 편지는 “To the same lady”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이 편지 바로 앞에 있는—Caryll에게 보내는—편지는 “concerning an unfortunate lady”라는 표제로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수녀원으로 들어갈 것을 고려중인 부인은 바로 Caryll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제가 되고 있는 “unfortunate lady”인 것이다.<sup>10)</sup> 이리하여 흔히 “Letters to Several Ladies p.206”은 “Letters to Several Persons, p.86”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Ian Jack에 의하면 “Letters to Several Ladies”는 1737년 眞版 『서간집』이 아닌 1735년의 僞版 (surreptitious edition)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록 일자는 명시되고 있지 않으나 목차에 “To an unfortunate Lady”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편지가 있다. Pope는 이 편지에서 그녀가 “the most valuable thing I know”임을 그녀에게 다짐하고 그녀의 오빠가 “결국에는 역시 당신의 한 친척으로 판명될 것이고 그 친척에게 마땅한 감정을 당신을 위하여 갖게 되었다는 것(will at last prove your relation, and has entertain'd such sentiments as become him in your concern)”을 축하하고 있다.<sup>12)</sup>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f you are resolved in revenge to rob the world of so much example as you may afford it, I believe your design to be in vain; for, in a monastery, your devotions cannot carry you so far towards the next world, as to make this lose sight of you.<sup>13)</sup>

그러나 이 편지의 수신인이 실재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 서간은 불운한 부인에 관한 더 많은 추측을 독자로부터 유도하기 위하여 끼어넣은 순전한 허구일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 “Elegy”가 금방 쓰여졌을 때에는 불운한 부인에 관한 친구들의 물음에도 馬耳東風이었던 Pope의 행동과 또 후년에 독자를 오도하는 모호한 주석을 붙인 행동간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이 주가 불운한 부인이 실재인물이라든 독자의 추측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라면—사실 그렇다—그것은 놀라운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Warton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An Essay*에서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실에 관해서 모른다 (“We are unacquainted with her story, and with that series of misfortunes, which seems to have drawn on the melancholy catastrophe”)고 실토했다. 그러나 “She is said to be the same person, to whom the Duke of Buckingham has addressed some lines”라고 말한 다음 Elegy에 관한 허다한 추측과 비평을 뒷받침해 줄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다.

If this ELEGY be so excellent, it may be ascribed to this cause; that the occasion of it was real...Events that have actually happened are, after all, the proper subjects for poetry.

10) E-C II, p. 204.

11) *Twick*. II, p. 355n.

12) Jack, p. 70.

13) See E-C II, p. 200.

Pope는 그가 지은 유일한 비가에 관한 Warton의 이러한 비평을 읽을 수 있었다면 快哉를 불렀을 것이다.

*An Essay*의 제 2 판(제 2 판 표제는 轉置되어 제 1 판의 *An Essay on the Writings and Genius of Pope*라는 표제가 *An Essay on the Genius and Writings of Pope*로 바뀌어지고 있다)이 6년 후에 나왔을 때 Warton은 “Elegy”의 전기적 배경을 자세히 논하였다. 여기서 Warton은 “We are unacquainted with the *whole* of her story”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끝에 가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첨가하고 있다. 초판에서는 *Eloisa to Abelard*의 마지막 8행인

And sure if fate some future Bard shall join  
In sad similitude of grief to mine,  
Condemn'd whole years in absence to deplore,  
And image charms he must behold no more,  
Such if there be, who loves so long, so well;  
Let him our sad, our tender story tell;  
The well-sung woes will sooth my pensive ghost;  
He best can paint 'em, who shall feel 'em most.

정녕 어떤 미래의 시인이 님 없는 세월을 온통 애태우고  
못 보는 가인의 모습을 오직 마음속에서 그려야만 하는  
내 신세와 같은 불행을 당하여 슬피한다면——  
그토록 오래, 그토록 많이,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슬프고, 우리의 애틋한 사연을 이야기할 지어다.  
잘 읊어진 슬픔은 내 슬픈 영혼을 달래주리,  
슬픔을 가장 느끼는 자가 슬픔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네.

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의 결론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They might stand for the conclusion of almost any story” 비판적이었던 그가 제 2 판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4)</sup>

They might stand *it should seem* for the conclusion of almost any story, were we not informed, that they were added by the poet in allusion to his own case, and the state of his own mind. For what determined him in the choice of the subject of this epistle, was the retreat of that lady into a nunnery, whose death he had lately so pathetically lamented, in a foregoing elegy, and for whom he had conceived a violent passion. She was first beloved by a nobleman, an intimate friend of Pope, and, on his deserting her, retired into France; when, before she had made her last vows in the convent, to which she had retreated, she put an end to her unfortunate life. The recollection of this circumstance will add a beauty and a pathos to many passages in the poem, and will confirm the doctrine delivered above, concerning the choice of subject.

*The Life of Alexander Pope, Esq.* (1796)의 저자 Owen Ruffhead는 Elwin의 이른바 “속

14) See Jack, pp. 70-71.

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험잡꾼(transparent imposter)<sup>15)</sup>인 Ayre의 날조된 이야기를 통채 믿고 그가 사용한 寫實의인 듯이 보이는 용어를 빌려 불행한 부인을 묘사할 정도였다. 가령

At last wearied out, and despairing quite, the unfortunate lady, as Mr. Pope justly called her, put an end to her own life. Having bribed a woman servant to procure her a sword, she was found dead upon the ground, but warm.<sup>16)</sup>

이라는 Ayre의 말속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그는 “부인”의 시체가 “아직 따뜻한 채로 땅바닥 위에서(yet warm upon the ground)”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Ruffhead는 Pope의 시가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그의] 감수성을 높히 평가하게끔 하는 (came warm from the heart, and does honour to [his] sensibility)”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yet warm upon the ground”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지당한 일”(appropriate enough)<sup>17)</sup>이라고 Ian Jack는 인정하고 있지만<sup>17)</sup> 사실 Ruffhead는 Elw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an uncritical transcriber, a blind man led by the blind”에 불과하다.<sup>18)</sup> Dr. Johnson도 Ruffhead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Ruffhead의 주장이 Ayre=curl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Life of Pop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lady's name and adventures I have sought with fruitless inquiry. I can, therefore, tell no more than I have learned from Mr. Ruffhead, who writes with the confidence of one who could trust his information.

전기적 자료가 부족하여 짜증스러웠고 자살을 “self murder; the horrid crime of destroying one's self”<sup>19)</sup>로 규정하고 있는 Christian moralist적인 그의 근본적인 입장 때문에 불운한 부인에 관해서는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욕망이 타올라 언제까지나 마음을 졸이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살을 택했다(“her desire were too hot for delay, and she liked self-murder better than suspense”)고 비정하게 재단하고 “Elegy”에 관해서는 사랑으로 제정신을 잃은 여자의 발광을 格上시키는 일보다 시가 악용된 예는 많지 않다(“Poetry has not often been worse employed than dignifying the amorous fury of a raving girl”)고 혹평하고 있다. “Elegy”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Johnson은 다음과 같이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비평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다.<sup>20)</sup>

But the tale is not skilfully told; it is not easy to discover the character of either the lady or her guardian. Pope praises her for the dignity of ambition, and yet condemns the uncle to detestation for his pride. The ambitious love of a niece may be opposed by the interest, malice, or

15) E-C II, p. 202.

16) Ibid., p. 197.

17) p. 71.

18) E-C II, p. 202.

19) Johnson's *Dictionary*에 실린 자살의 정의이다 : see Jack, p. 82.

20) E-C II, p. 198.

envy of an uncle, but never by his pride. On such an occasion a poet may be allowed to be obscure, but inconsistency never can be right.

Elwin이 밝힌 바와 같이 “Elegy”에 있어서 Johnson이 발견한 모순은 “부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게 하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사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즉 “부인”의 비운이 그녀의 “야망(ambition)”의 탓이라고 한 시행들(11-14행)은 “부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나이를 사랑했다는 설에 대하여 유리하지만 그와 반대로 질여(“부인”)에게 가혹한 처사를 하게 만든 것이 숙부의 “교만(pride)”인듯이 말하고 있는 구절(41-46)은 그녀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설에 유리하다.<sup>21)</sup>

Johnson이 사망한 해(1784년)에 *Gentleman's Magazine*의 익명의 기고자는 “a very worthy, but obscure, country parson”으로 부터 오래전에 들은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22)</sup>

That the lady's name was Scudmore; that she and her family were Roman Catholics; that, having fixed her affections on a person not suitable to her, the match was steadily opposed by her uncle and guardian. This created such uneasiness between them, that it was agreed they should separate, and the lady go abroad to a convent. It was to Antwerp, as well as I can recollect, that she was sent; not with a view of taking the veil, but to stay as a boarder, her friends hoping that, by the time she was of age, she might come to better judgment; that she was soon after seized with a fever, which ended in a state of melancholy; and that she some how or other procured a sword, and put an end to her life.

이러한 기사가 실리자 Horace Walpole은 Joseph Warton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소위 발견했다는 사실(pretended discovery)”를 “완전히 틀린(quite mistaken)” 소리라고 공박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t least, my lady Hervey, who was acquainted with Pope, and who lived at the time, gave me a very different name, and told me the exit was made in a less dignified manner—by the rope. I have never spread this....

Walpole은 다음에 만나면 “부인”의 이름을 가르쳐주겠다고 Warton과 약속하였지만 Warton과 만나기 전에 그는 적어도 Sir John Hawkins라는 또 한 사람에게 “부인”의 이름을 알려주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1787년에 나온 *The Works of Samuel Johnson*에서 Sir John Hawkins는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부인의 이야기를 앞으로 해서 문단에서는 잘 알려진 인사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는—Johnson 박사에게 보내는—한 서간(a letter to Dr. Johnson, containing the name of the lady, and a reference to a gentleman well known in the literary world for her history)”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Him [the gentleman well known in the literary world for her history] I have seen, and, from

21) Ibid, p. 203.

22) Quoted in Jack p. 72. 이 논문의 이 부분의 자료는 모두 Jack에 의존하고 있다.

a memorandum of some particulars to the purpose communicated to him by a lady of quality, he informs me that the unfortunate lady's name was Withinbury, corruptly pronounced Winbury; that she was in love with Pope, and would have married him; that her guardian, though she was deformed in her person, looking upon such a match as beneath her, sent her to a convent, and that a noose, and not a sword, put an end to her life.

여기서 “Him [the gentleman well known in the literary world for her history]”은 Walpole이고 “a lady of quality”는 Lady Hervey임은 분명한데 그것은 Walpole이 자신의 필사본에 붙친 Pope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보아도 알수 있다.

The name of this Lady was Withinbury, pronounced Winbury: the seat of her family was Chiras Court, Vulgarly Cheyney's Court, situated under Fromhill, and forming nearly a triangle with Home-Lacy and Hampton-Lacy. It is said that she did not stab, but hang herself.

이러한 정보는 미구에 약속한대로 Walpole에 의하여 Warton에게 전해졌으며 그것은 1797년에 Warton이 내놓은 *The Works of Alexander Pope, Esq.* 속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진술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The true cause of the excellence of this elegy is, that the occasion of it was real; so true is the maxim, that nature is more powerful than fancy, and that we can always feel more than we can imagine; and that the most artful fiction must give way to truth, for this Lady was beloved by Pope. After many and wide enquiries I have been informed that her name was Wainsbury, and that—which is a singular circumstance—she was as ill-shaped and deformed as our author. Her death was not by a sword, but, what would less bear to be told poetically, she hanged herself.

Warton이 이용한 정보는 놀라우리만큼 세밀하고 지명, 인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등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별로 신빙성이 없음은 Ian Jack의 조사결과로 분명해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Chiras Court라는 지명은 Isaac Taylor가 1754년에 내놓은 *The Map of the County of Hereford*에서 확인되었으나 실지로 이곳에 Withinbury, Winbury, Wainsbury등의 이름을 가진 부인이 살았었다는 흔적은 Hereford and Worcester County의 County Council Records나 Public Record Office의 기록을 보아도 찾을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그 외관과는 달리 사실무근의 풍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Lady Hervey가 그러한 소문에 접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 Walpole이 그러한 소문의 소재인 노릇을 할 위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문제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취할 태도를 Ian Jack는 다음과 같이 명언하고 있다.

We must assume that Lady Hervey gave Walpole a more or less accurate account of an old rumour, but the question of the truth of rumour is another matter. If a lady with some such name as Withinbury had in fact lived at Chiras Court it seems unlikely that she was more than just one of various unfortunate ladies whose fates may have been in Pope's mind as he wrote his poem.<sup>23)</sup>

23) Ibid., p. 73.

1806년 William Lisle Bowles는 그의 *The Works of Alexander Pope*에서 불운한 부인에 관한 진실은 “아직도 불확실한 신비속에 쌓여있다(is still involved in mysterious uncertainty)”라고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기묘한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다.

It is in vain, after the fruitless enquiry of Johnson and Warton, perhaps, to attempt further elucidation; but I should think it unpardonable not to mention what I have myself heard, though I cannot vouch for its truth. The story which was told to Condorcet by Voltaire, and by Condorcet to a gentleman of high birth and character, from whom I received it, is this:—that her attachment was not to Pope, or to any Englishman of inferior degree, but to a young French prince of the blood royal, Charles Emmanuel, Duke of Berry, whom, in early youth, she had met at the court of France.

Bowles는 그가 들은 이러한 정보는 “Elegy”의 내적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운한 부인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녀가 도저히 바라서는 안될 지체높은 사람과의 결연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 한 “Elegy”의 11-14행의 “ambition”에 관한 언급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Bowles는 “정신이상의 초기상태(incipient lunacy)”가 불운한 부인의 “도착된 감정들과 비명의 종말(perverted feelings and untimely end)”의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4)</sup> Bowles는 불운한 부인의 심리에 주목하지만 William Roscoe는 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24년에 *The Works of Alexander Pope, Esq.*에서 그는 Pope가 일견 그의 비상한 능력을 “범죄행위를 승인해주고, 아무리 경계하여도 좋을 도덕적 신념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to give a sanction to an act of criminality and to inculcate principles which cannot be too cautiously guarded against)” 발휘한듯이 보일지도 모르나, 그러한 의관과는 달리 “Elegy”는 “부인”의 비운을 가져온 장본인들에 대한 “분개심의 자연발발(a spontaneous burst of indignation)”라고 지적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roughout the whole poem, the author speaks as if he were under a delusion, and utters sentiments which would be wholly unpardonable at other times. It is only in this light that we can excuse the violence of many of the expressions, which border on the very verge of impiety. The first line of the poem demonstrates that he is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reason. He sees the ghost of the person whom he so highly admired and loved.

시인은 극도에 달한 그의 슬픔으로 인하여 “부인”의 자살행위에서 위대하고 고결한 점 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녀를 불행케 만든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원망하고 저주하지만 “마침내는 원망 다음에는 동정이, 그리고 공포 다음에는 연민이 뒤따르는(compassion at length succeeds to resentment, and pity to terror)”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The poet in some degree assumes his own character, and his feelings are expressed in language of the deepest affection and tenderness, which impresses itself indelibly on the memory of the

24) E-C II, pp. 199-200.

reader.

Roscoe의 설은 후설하는 바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의분을 폭발시키는 시의 등장인물로서의 시인과 “작자의 그 어떠한 작품도 그 哀情이나 진정한 문학성에 있어서 능가치 못하는 (is not exceeded in pathos and true poetry by any production of its author)” “Elegy”를 의식적으로 창작하는 시의 창작자로서의 시인과의 일단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평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시한다.<sup>25)</sup>

이처럼 “Elegy”는 불운한 부인과 시인에 관한 수많은 억측을 빚어냈으며 또한 그 억측의 세밀함은 *The School for Scandal*의 마지막 幕에 등장하는 소문꾼들의 기막히게 세밀하게 꾸며진 거짓말을 연상케 한다. 1세기 이상 갖가지 억측이 난무한 후에 1854년 *The Athenaeum*지에서 훌륭한 학자이며 비평가인 Charles Wentworth Dilke—그는 문학사상의 세밀한 점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유달리 진실을 사랑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안 사람이었다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his character was his singular love of truth, and his sense of its value and importance, even in the minutest points and questions of literary history”)<sup>26)</sup>—는 다음과 같이 진실을 갈파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비평가들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All we are told by the biographers no matter how circumstantially, is merely conjectural, made up from hints in the Elegy, fanciful interpretations of passages in Pope's letters, assumptions of dates, changes of persons, and traditional or original nonsense.<sup>27)</sup>

1871년 Elwin은 그의 Pope전집에서 선배 비평가들의 비평을 광범하고 풍부하게 인용하고 (기묘하게도 그의 입장을 강화하여줄 Dilke의 비평은 인용되고 있지 않다) 불운한 부인은 역사적인 실체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시적인 창안물(poetical invention)”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At variance in nearly every particular, the conflicting histories of the unfortunate lady have the common quality, that they are unsupported by a single circumstance which could warrant the smallest measure of belief... The biographers and editors who went about enquiring after the unfortunate lady had no suspicion that she might be altogether a poetical invention....<sup>28)</sup>

같은 Pope 전집의 제 5 권으로 1889년에 나왔던 *The Life of Alexander Pope*<sup>29)</sup>에서 W.J. Courthope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Mrs. Weston에 대한 Pope의 동경심이 “Elegy”의 몇몇 시행들의 “basis of sincere emotion”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지로 일어난 사건의 세목들을 토대로 한 시행은 이 시에 하나도 없다 (“there is scarcely a line in the poem founded o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case”)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25) Ibid., pp. 200-01.

26)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s.v. Dilke.

27) Jack, p. 74.

28) E-C II, pp. 203-04.

29) *The Twickenham Edition*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판이었던 Elwin과 Courthope 공편의 이 Pope 전집은 1, 2, 3, 4권이 Poems, 5권이 Life, 6, 7, 8, 9권이 Letters, 10권이 Correspondence and Prose Work로 되어 있는데 Elwin은 1, 2, 6, 7, 8권을, Courthope는 3, 4, 5, 9, 10권을, 각각 분담 편집하고 있다.

## Courthope는

The reality of the feeling has misled the critics into the belief that such an animated expression of feeling could only have been evoked by a series of facts corresponding with the story suggested in the poem. What the "Elegy" really establishes, in spite of serious faults of taste by which it is disfigured, is Pope's right to be considered a creative poet of genuine pathetic power.<sup>30)</sup>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The true cause of the excellence of this elegy is that the occasion of it was real"이라고 말한 Warton의 생각과 비교하면 매우 재미있는 미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1934년에 그의 *The Early Career of Alexander Pope*에서 George Sherburn은 "아주 많은 후보자들을 제시하여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수 없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have presented so many candidates as to reduce the problem to an absurdity)"고 Elwin과 Courthope를 비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자신도 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혹독한 부모들이나 남편들을 가진 여러 부인들의 불행한 사연들이 Pope가 그린 부인의 비극으로 승화되었을 것(the woes of various ladies with brutal parents or husbands may have been sublimated into the tragedy of Pope's lady)"이지만 그들중 어느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부인"의 불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결론짓고 있다.<sup>31)</sup> 1956년 그가 편집한 Pope의 *Correspondence*에서 Sherburn은 "P."라고 표시된 주에서 언급된 서간은 Mrs Weston, Mrs Cope, 혹은 "Some other worthy but hitherto unappreciated lady"에게 보낸 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2)</sup> 1940년 *The Twickenham Edition*의 편자인 Geoffrey Tillotson은 Mrs Weston과 Mrs Cope의 이름을 충실히 되풀이하고 있지만 "Elegy"의 전기적, 역사적 문맥보다는 그 문학적인 문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문학적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Elegy"에서 죽은 부인은 단순히 X라는 특정한 부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인에 의하여 이상화된 하나의 여신("It is not merely Mrs X who is dead, but a goddess, the ideal of a hundred poets"<sup>33)</sup>)이며 따라서 "Elegy"는 Pope가 연정을 느끼고 있었던 Lady Mary Wortly Montague에 대한 사랑의 고도의 상상적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sup>34)</sup>

아마도 "Elegy"를 보는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놓은 것은 Reuben A. Brower일 것이다. 1959년에 *Alexander Pope: The Poetry of Allusion*에서 그는 "부인"의 역사적 정체는 미해결상태로 남겨둔채 "Elegy"의 문학적 정체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부인"은 이 시에서 "a Roman lover"로扮하고 있고 "부인"을 읊고 있는 시인의 어조는 "Roman-elegiac"이라고 말하고 있다.

It might be said that critics have paid too little attention to the first word of the title, and too much to the last two. Whether like Johnson they have regarded the lady as "a raving girl," or

30) pp. 133-34.

31) *The Early Career of Alexander Pope* (Oxford, 1934), pp. 202-03.

32) Jack, p. 74.

33) *Twick.* II, pp. 356-58.

34) *Ibid.*, pp. 353-55 and notes.

like Warton, as truly pathetic, they have thought more of the "real" woman than the poetic one. Who she was outside the poem (if she existed) will perhaps never be known, but in the poem she is cast a Roman lover, and the accent of the poet in addressing her is Roman-elegiac.<sup>35)</sup>

이상에서 우리는 비교적 많은 지면을 소비하여 비교적 최근까지의 주요 비평가들의 "Elegy"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관하였거니와 이들의 접근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798년 Ian Jack가 "Elegy"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 *The Elegy as Exorcism*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것이 '부인'에 관하여 쓰여지고 시에 관해서는 너무 적게 쓰여졌다 (Too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lady, and too little about the poem)"<sup>36)</sup>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an Jack는 이 논문에서 Hamlet의 아버지의 영혼처럼 그 깊은 원한을 풀어주기 전에는 결코 편히 쉬지 못하는 불운한 부인의 冤魂을 위하여 "Elegy"는 "액풀이 (exorcism)"의 구실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극히 재미있기는 하나 위협스러운 정도로 단순화시킨 흠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건전한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있었을 수많은 비평가들과 독자들이 "Elegy"에 대하여 비상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꾸준히 보여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을 "Elegy"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에 대한 그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Pope가 그러한 독자반응을 의도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快哉를 불렀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P."라고 표시된 주에서 "the Duke of Buckingham's verses to a Lady designing to retire into a Monastery"의 주제가 되고 있는 부인과 불운한 부인이 동일인인듯 하다고 한 것은 "부인"의 역사적 정체에 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Christopher Gillie의 이른바 "red herring"<sup>37)</sup>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Pope학도들이 "부인"을 하나의 허구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Courthope의 이른바 "a fiction which should have the appearance of reality"<sup>38)</sup>이며 Pope가 "Elegy"를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듯이 의도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이 필경 의미하는 바는 이 시가 Ian Jack의 이른바 "액풀이"의 시가 아니라 일종의 "함정 (entrapment)"의 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시라기 보다는 최대한도로 독자를 작품속으로 끌어드리려는 독특한 의도를 가진 시라는 사실이다. 1981년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의 年次總會의 18세기 부문이 주최한 "Satires on Readers: Audience Entrapment in Poetry, Prose Fiction, Biography, Drama"라는 주제로 모인 토론회에서 논의된 "함정"의 작품의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sup>39)</sup>

- (1) It should elicit a peculiarly intense response.
- (2) It should have so little theme that the reader himself is trapped into becoming its subject.
- (3) Analysis of the work should demonstrate why it produces the response it does.

35) p. 64.

36) Jack, p. 69.

37) "Alexander Pope: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in *Interpretations: Essays on Twelve English Poems*, ed. John Wain (London, 1955), p. 82.

38) E-C V, p. 136.

39) David M. Vieth, "Entrapment in Pope's *Elegy*," SEL, 23 (1983), 426n.

(4) There should be empirical evidence that it consistently produces the same response.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세목들의 순서를 바꾸고 또한 그 내용을 요약하여 “합정”의 작품의 요건은 (1) 반응의 동일성, (2) 반응의 강열성, (3) 반응의 설명가능성, (4) 주제의 미약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뀌어진 순서를 따라서 “합정”의 작품으로서의 “Elegy”의 제양상을 살펴보고저 하는 것이다.

“Elegy”가 (1)의 요건 즉 반응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Elegy”는 철저하게 동일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비평가들과 독자들로부터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인 증거들은 제시하여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Elegy”가 (2)의 요건 즉 반응의 강열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은 “Elegy”를 유달리 감동적인 작품으로 느낀 수많은 18세기 및 19세기 비평가들의 증언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은 “Elegy”가 *Eloia to Abelard* 보다도, 아니 Pope의 그 어떤 작품보다도,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 고도의 喚情性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상징한다는 합정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위에 인용된 바 있는 Warton의 진술에서 찾아 볼 수 있거니와 또한 눈먼 시인 Thomas Blacklock에게 Pope의 “Elegy”를 읽어주었을 때 이 눈먼 시인이 보여준 반응을 Spence에게 전하는 철학자 David Hume의 다음과 같은 말속에서도 익히 찾아볼 수 있다.

I repeated to him Mr. Pope's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which I happen'd to have by heart: And though I be a very bad Reciter, I saw it affected him extremely. His eyes, indeed, the great Index of the Mind, cou'd express no Passion: but his whole Body was thrown into Agitation: That Poem was equally qualified, to touch the Delicacy of his Taste, and the Tenderness of his feelings.<sup>40)</sup>

그런데 이러한 반응의 강열성은 단순히 “Elegy”가 유도하는 효과일뿐 아니라 Gillie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sup>41)</sup> “Elegy”의 주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후설하게 될 것이다.

“합정”의 작품의 제(3)의 요건은 반응의 설명 가능성인데 그것은 新批評과 같은 수사적 분석을 통하여 그 작품이 지니는 고도의 喚情性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legy”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상은 그의 본의는 아니지만 Johnson이 가장 잘 들어내주고 있다. 위에서 인용된 Johnson의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부인”과 그 숙부의 성격이 모호하게 그려져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격에 관한 세부를 자유롭게 꾸며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Elegy”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 그의 이른바 “inconsistency”를 그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Johnson이 “inconsistency never can be right”라고 말함으로써 모순을 이 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헤아리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점이 “Elegy”의 강열한 독자반응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40) Quoted in *Twick*. II, p. 358.

41) pp. 79-80.

42) p. 78.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Gillie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Paradise Lost*의 Satan의 경우처럼 “ambition”과 “pride”는 유착되어 있는 것이다.<sup>42)</sup> 그런데 “부인”의 ambition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 그녀의 숙부의 pride에 대해서는 비난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며 “Elegy”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비평가로서 Johnson은 바로 이 점을 흠으로써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Elegy”는 다른 모든 “함정”의 시가 그렇듯 작품 내부의 곳곳에 모순을 심어놓아 독자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갈망과 노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독자들 자신이 그들이 읽는 작품을 창조하는 독서과정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함정”의 작품의 제(4)의 요건, 즉 주제의 박약성이라는 요건을 “Elegy”에 적용하려고 할 때 Johnson의 비평은 이 요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정”의 작품의 주된 목적은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喚情性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의 작품에는 별로 주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 주제적 내용은 아주 희박하고 독자 자신이 작품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되어버림으로서 상상적인 만족을 얻거나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함정”의 작품은 Dryden의 *Mac Flecknoe*, Swift의 *A Tale of a Tub*, Pope의 *The Dunciad*와 같이 주제를 결하는 것이 보통이며 Rochester의 “Upon Nothing”이란 작품은 아예 그 표제부터 그 無題性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Pope의 “Elegy”는 명시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함정”의 시와는 다른 점이다. 아니면 적어도 주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고도의 僞裝性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Elegy”의 주제로서 Pope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비평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근년에 나온 “Elegy”에 관한 몇개의 해석을 살펴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Ian Jack는 그것을 하나의 “액풀이 의식(rite of exorcism)”으로 보고 F.R. Leavis나 Reuben Brower와 함께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문학적 convention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illie는 Pope의 주제를 “영웅적 정신과 야비한 정신과의 갈등(moral heroism at war with moral meanness)”으로 보고 정서적인 “반응능력(responsiveness)”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sup>43)</sup> Donald C. Mell은 “Elegy”가 예술적인 이상들과 현실적인 삶간의 갈등(“conflict between the idealizations of art and the facts of experience”)을 다루고 있으며 시간, 이별, 죽음에 대하여 상상력이 어느정도 충분한 자기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그것은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다.<sup>44)</sup> Gillie와 Mell의 해석을 다같이 반대하는 Howard Weinbrot는 “Elegy” 해석상의 초점은 서술자의 교란된 심리(“disturbed state of mind”)에 놓여져야 하며 또한 이 서술자는 Pope 자신과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의 가면(persona)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해석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상이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Elegy”를 하나의 “달려져 있지 않은” “열려져 있는” 구조——작품내부의 여러 곳에 의도적으로 모순을 심어 놓고 독자들은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열려져 있는” 구조로서 이해한다면 이러한 해석들

43) p. 79-88.

44) “Pope’s Idea of the Imagination and the Design of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MLQ* 29 (1968), 395-406.

45) “Pope’s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MLQ* 32 (1971), 255-67.

간에 존재하고 있는듯이 보이는 차이는 곧 무산되고 말 것이다.

“Elegy”는 그 첫 귀절부터 모순을 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부인”의 정체, 그녀의 “bleeding bosom”과 “visionary sword”에 관하여 제기되는 수사적 의문문들 다음에는 당연히 어떤 분명한 주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욱 모호한 의문문들만이 이어진다. 관례적으로 말한다면 이 첫머리 시행들은 “부인”에 대한 독자들의 긍정적인 첫 반응을 유도하도록 꾸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나타나는 독자들의 반응은 그 정반대이며 이들 두 의문문들의 대답들은 독자들의 의식 속에서 화해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된다.

Oh ever beauteous, ever friendly! tell,  
Is it, in heav'n, a crime to love well?  
To bear too tender, or too firm a heart,  
To act a lover's or a Roman's part?  
Is there no bright reversion in the sky,  
For those who greatly think, or bravely die? (5~10).

오, 영원히 아름다운 자, 영원히 다정한 자여! 말하시라.  
하늘에서도 죄가 되느냐,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다정한, 아니면 너무 굳건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  
연인의, 아니면 <로마인의> 구실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는 빛나는 복귀란 없느냐,  
위대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죽는 자들을 위해서는?

I Corinthians 13에서 St. Paul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랑 그 자체는 한 없는 미덕이지만 그 사랑의 귀결이 자살이 된다면 “지혜롭지 못하게 지나치게 (not wisely but too well)”<sup>46)</sup> 사랑한 Othello의 경우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이른다면 그 것은 미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명예로운 자살을 의미하는 “로마인의 구실”은 異敎的인 문맥 속에서 로마인에게는 명예롭고 상찬할만한 일이지만 기독교적 문맥에서 그것은 大罪를 구성한다. “위대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죽는다”는 것은 불굴의 의지로 신을 거역한 Satan의 교만을 방불케 하며 “reversion”이란 말도 단순한 “복귀”라는 의미 이외에 그것이 원래 법률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의미<sup>46)</sup> 때문에 뜻밖에 불로소득의 많은 유산을 얻은 것 같은, 그래서 어쩐지 장사 속을 들어내는 듯한 상스러운 어감을 수반한다.

둘째 귀절에서는 Gillie가 “Elegy”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할 갈등이 나타난다. 전반 6행에서는 “부인”의 “영웅적인 정신(moral heroism)”이, 그리고 후반 6행에서는 “부인”이 위의 대부분의 사람들(그녀의 일가 친척을 포함한)의 정신적인 불모성이 그려지고 있다.

Why bade ye else, ye Pow'rs! her soul aspire  
Above the vulgar flight of low desire?  
Ambition first sprung from your blest abodes;  
The glorious fault of Angels and of Gods:

46) *Othello*, v. ii. 344.

46) SOD의 정의 특히 2 및 3 (a 및 b)에 주어진 뜻을 참조.

Thence to their Images on earth it flows.  
 And in the breasts of Kings & Heroes glows!  
 Most souls, tis 'true, but peep out once an age,  
 Dull sullen pris'ners in the body's cage:  
 Dim lights of life that burn a length of years,  
 Useless, unseen, as lamps in sepulchres;  
 Like Eastern Kings a lazy state they keep,  
 And close confin'd to their own palace sleep. (11~22)

그대들 神들이어! 그렇지 않다면 왜 그대들은 그녀의 영혼에게  
 멍하였느냐, 저속한 욕망이 보통 달으는 것 보다 높이 지향할 것을?  
 야망은 먼저 그대들의 복된 처소에서 솟아났으니,  
 천사들과 신들의 영광스러운 과오로다.  
 그곳으로부터 그것은 그들을 닮은 지상의 존재들에게로 흘러와  
 왕들과 영웅들의 가슴에서 빛나도다!  
 육체의 장 속에 가친 둔하고 음울한 포로들인  
 대부분의 영혼들은 오직 한 시대에 한번 나타나니,  
 묘지속에 등불인양 무용하게 숨어서  
 몇년동안 불타는 희미한 생명의 불빛들이로다.  
 마치 동방의 왕들인양 나태하게 보좌를 지키며  
 잠자도다, 그들 자신의 궁전에 가쳐.

이러한 대조는 Gillie가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인”의 편이 되어 그녀의 친척들의 “야비한 정신”에 반대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47)</sup> 그녀의 친척들은 활발한 활력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시행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convention의 포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부인”의 반항은 단순히 그들처럼 convention의 포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ambition”과 동정 내지는 공감——“남의 행복에 기뻐하고 남의 슬픔에 눈물 흘리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인”은 비정한 그녀의 친척의 고루하고 인습적인 생활태도와는 달리 삶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능력, Gillie의 이른바 “반응능력(responsiveness)”<sup>48)</sup>를 가지고 있다. Maynard Mack의 지적대로 그녀의 친척의 삶이 “生中死(death-in-life)”라면 그녀의 자살——“Cold is that breast which warm'd the world before”——은 익히 死中生(life-in-death)이라고 할 수 있다.<sup>49)</sup> 그러나 대조는 그렇게 截然한 것만도 아니다. “glorious fault”라는 oximoron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부인”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하다. “glorious fault of Angels and of Gods”는 Satan의 원죄인 “pride”를 암시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닮은 지상의 존재들...왕들과 영웅들의 가슴 속”에서도 “pride”는 여전히 “fault”이며 Pope의 *Epistle to Augustus*나 Swift의 *On Poetry: A Rapsody*에서 그려진 왕들이나 영웅들의 모습이 그렇듯, 좋게 볼수는 없는 것

47) pp. 80-81.

48) p. 79.

49) “Wit and Poetry and Pope: Some Observations on His Imagery,” in *Pope and His Contemporaries*, ed. James L. Clifford and Louis A. Landa (New York, 1949), p. 22.

이다.

지상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요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투적인 말을 한 뒤에는 “부인”의 친척에 대한 저술자의 저주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convention을 따르는 기계적 행동과 “반응능력”의 결여와 죽음이 유착되고 있다.

On all the line a sudden vengeance waits,  
And frequent hurses shall besiege your gates.  
There passengers shall stand, and pointing say,  
(While the long fun'rals blacken all the way)  
Lo these were they, whose souls the Furies steel'd,  
And curs'd with hearts unknowing how to yield. (37~42)

그대들의 一族에 불의의 화가 따르고,  
그대들의 대문에 빈번히 영구차가 밀려올지이다.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손짓하여 말하리라,  
(긴 장의 행렬이 길을 온통 어둡게 할 때)  
보라 이자들은 응보의 신들의 저주를 받아, 가혹한 마음,  
누구러질 줄 모르는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라.

여기서 사용된 말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거의 모든 동사에 대해서 주어 구실을 하는 것들은 “sudden vengeance”, “frequent hurses”, “long fun'rals”와 같이 비인격적인 사물들이거나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passengers”, “Furies”와 같이 “부인”의 친척이 아닌 사람들이나 신들이다. 또한 “frequent hurses”(이 시대의 다른 시들에서는 “frequent funerals”<sup>50</sup>)라는 異形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라틴어식의 상투적 표현이며 의식적인 경직성을 강조해주는 딱딱한 말이다. 그리고 “부인”이 관례적인 장례절차 없이 땅에 묻힌 상황——“thy unpaid rites”——은 역설적으로 장례관행의 세목들을 하나씩 부정하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Elegy”가 지니는 모순 내지는 아이러니들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 시행들은 그 행간에서 “부인”은 오직 convention에 따르는 방식에 의해서만 convention에 반항할 수 있다는 의미를 스며낸다고 할 것이다.

No friend's complaint, no kind domestic tear  
Pleas'd thy pale ghost, or grac'd thy mournful bier;  
By foreign hands thy dying eyes were clos'd,  
By foreign hands thy decent limbs compos'd,  
By foreign hands thy humble grave adorn'd,  
By strangers honour'd, and by strangers mourn'd!  
What th' no friends in sable weeds appear,  
Grieve for an hour, perhaps, then mourn a year,  
And bear about the mockery of woe

50) Tillotson은 “frequent funerals”라는 표현이 사용된 예를 Dryden의 *Aeneid* 譯 ii, 491(“The streets are fill'd with frequent funerals”)에서 들고 있지만 Vieth는 *Annus Mirabilis*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Twick. II, p. 365 및 Vieth p. 430.

To midnight dances, and the public show?  
 What tho' no weeping Loves thy ashes grace,  
 Nor polish'd marble emulate thy face?  
 What tho' no sacred earth allow thee room,  
 Nor hallow'd dirge be mutter'd o'er thy tomb? (49~62)

친구의 비탄도 가족들의 다정한 눈물도  
 그대의 피리한 혼령을 위로하고 그대의 슬픈 관대를 장식치 않았도다.  
 타향 사람의 두 손이 임종의 그대 두 눈을 쓸어주고,  
 타향 사람의 두 손이 그대 사지를 반듯하게 다듬어 주고,  
 타향 사람의 두 손이 초라한 그대 묘지를 꾸며주고,  
 낯선 이들이 장사를 치러주고, 낯선 이들이 슬퍼해 주었도다!  
 그 어머니——비록 친구들이 상복 차림 입고 나타나,  
 아마도 한 시간쯤 슬퍼하고, 그 후 일년간 服喪한답시고  
 슬픔의 허울 두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한밤중의 무도회로 싸돌아 다니지 않는다 한들?  
 그 어머니——비록 눈물 스며나오는 큐피트의 상들이 그대의 무덤을 장식치 않고,  
 미끈한 대리석 조각이 그대 얼굴모양을 담지 않는다 한들?  
 그 어머니——비록 거룩한 땅이 그대가 들 자리를 허락치 않고,  
 거룩한 만가가 그대 무덤 위에서 중얼거려지지 않는다 한들?

Pope의 시에 함축된 convention에 대한 반항의 이야기 그 자체는 좌절된 젊은이의 사랑, 가족 성원간의 세대차로 인한 갈등, 자살등 가장 깊은 인간정서의 원천에 닿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Nicholas Rowe의 *The Fair Penitent*, Shakespeare의 *Romeo and Juliet*, 그리고 특히 Luigi Pirandello의 *Six Characters in Search of an Author*<sup>51)</sup>와 같은 여주인공의 비극 작품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인”이 장례식이라는 convention에서 제외됨을 보상해주는 마무리 시행들에 있어서는 nature와 grace를 양분하는 convention에 따라서 첫 4행에서는 nature의 범주에 속하는 갖가지 축복들이, 나중 2행에서는 grace의 범주에 속하는 축복들이 배열되고 있다.

Yet shall thy grave with rising flow'rs be drest,  
 And the green turf lie lightly on thy breast:  
 There shall the morn her earliest tears bestow,  
 There the first roses of the year shall blow;  
 While Angels with their silver wings o'ershade  
 The ground, now sacred by thy reliques made. (63~68)

그러나 그대의 무덤은 자라는 화초로 꾸며지고  
 푸른 잔디가 그대 가슴 위에 가볍게 놓이리라.  
 그곳에선 아침이 가장 이른 눈물을 베풀어주고,  
 그곳에선 한 해의 첫 장미꽃이 피리라.

51) Vieth, p. 431.

한편 천사들은 은빛 나래로 땅을 덮으리니—  
그대의 유해로 인해 이제는 거룩하게 된 땅을.

여기서 묘지에 피는 꽃들, “눈물”로 표현된 이슬방울, 천사의 “silver wings”<sup>52)</sup> 등은 Gillie가 표현한 대로 “진부하다(platitudinous)<sup>53)</sup>고 할수 있을 정도로 묘지를 묘사할때에는 의례히 사용되는 상투적 소도구들이다. 그리고 “And the green turf lie lightly on the breast”는 단순히 *Sit tibi terra levis*(May the earth lie lightly upon thee)라는—로마사람들의 묘비에서는 S.T.T.L.이라는 약자로 흔히 표시될 정도로 상투적인—라틴어 표현을 영어로 옮겨놓은데 불과하다.<sup>54)</sup> “부인”의 친척이 완전한 convention의 포로였고 “부인” 또한 그 convention에 반항함으로써도 그것을 완전히는 피할 수 없었다면 Pope의 고도로 양식화된 문체—“By foreign hands”가 감동적으로 되풀이되는 anaphora(首句反復)라는 수사적 어법의 사용에서 들어나는 바와 같이—는 또한 예술에 있어서도 convention과 전통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할 것이다. Brower, Leavis,<sup>55)</sup> Jack 등의 비평가들은 각기 “Elegy”의 고전적 기초, 형이상학파적 뿌리, 悲歌的 전통을 말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그들의 접근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Pope의 시의 樣式性을 설명하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Brower가 박학하게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은 Ovid적인 근원에 친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sup>56)</sup> Pope의 의도는 익히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예술작품에는 그것들이 따라야하는 선례와 convention이 있다는 사실을 Pope의 양식화된 문체는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과 그녀의 친척의 행동을 특징지우고 또한 Pope의 문체를 특징지우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convention이라고 한다면 convention은 또한 강열한 반응—Gillie의 소위 “반응능력(responsiveness)”—과 함께 “Elegy”의 주제—Mell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예술과 삶의 관계와 관련되는—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부인과 그녀의 친척은 convention 속에 함께 묶여 있지만 그들은 또한 죽음 속에서 평등하게 된다.

So peaceful rests, without a stone, a name,  
What once had beauty, titles, wealth, and fame.  
How lov'd, how honour'd once, avails thee not,  
To whom related, or by whom begot;  
A heap of dust alone remains of thee;  
'Tis all thou art, and all the proud shall be! (69~74)

그처럼 비석없이, 이름없이, 평화로히 쉬도다,  
한때 미와 작위와 부와 명성을 누렸던 자들도.

52) Wakefield는 이 표현의 용례를 Fairfax의 Tasso작품 번역(I. xiv)에서 천사 Gabriel을 묘사하는 다음 시행에서 들고 있다.—E-C II, p.214, n.3: Of silver wings he took a shining pair/  
Fringed with gold.

53) p. 83.

54) *Twick*. II, p.367, n. 64.

55) *Revaluation* (New York, 1963), pp.69-81.

56) Brower는 우리가 “the poetry of heroic love in its purest form in *Heroides* and the *Metamorphoses*”와의 “얼마간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Elegy”에서의 Pope의 의도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p. 66.

그대에게 다 쓸데 없도다, 한때 얼마나 사랑받았건, 얼마나 존경받았건,  
 누구의 친척이었건, 누구의 자식이었건.  
 그대에게선 오직 한줌의 흙이 남았으니,  
 그대의 모든 것, 교만한 자들의 모든 것은 그뿐이리.

Gillie와 같은 비평가들은 애써 “부인”의 정열적인 “ambition”과 그녀의 숙부의 감정적으로 불모하고 비정한 “pride”를 구별하려고 한다.<sup>57)</sup> 그러나 방금 인용한 이 碑銘의 끝 행(‘Tis all thou art, and all the proud shall be!)은 John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인”이나 그녀의 친척이 다같이 pride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이 시의 처음부분에서 던져진 암시를 오히려 확인해주는 듯하다. 만약 “Elegy”가 이 시행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모든 경쟁의 상쇠를 결과하여 “Elegy”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수 없을, 그야말로 무주제의 시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나타나는 “Elegy”의 끝 귀절, 시인이 그 자신을 읊고 있는 終章——Tillotson의 소위 “personal coda”<sup>58)</sup>——은 이 시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보다 확실한 문맥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 이 비명만을 잘 엮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따로 곡을 부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sup>59)</sup> 그 후 수많은 석공들은 그것을 마구 비석에 새겼다고 하지만 Elwin이 꼬집은 것처럼 “묘지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곳에 묻힌 사람들이 ‘하나의 흙더미’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No one in a churchyard requires to be reminded that its buried population is ‘a heap of dust’).”<sup>60)</sup>

“終章”은 “Elegy”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서술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서술자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어조의 변화, 상충하는 문체들과 같은 “Elegy”의 내적 모순을 설명하기 위하여 Weinbrot는 “이성을 잃은 시인=서술자(distraught poet-narrator)”<sup>61)</sup>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1824년 William Roscoe의 설<sup>62)</sup>을 그 효시로 볼수 있는 이러한 해석을 최근에는 Yasmine Gooneratne<sup>63)</sup>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극적독백의 서술자나 소설의 등장인물처럼 이 시의 서술자를 persona로 간주함으로써 작자와 서술자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Elegy”의 내적모순은 Pope 자신이 범한 모순이 아니라 서술자가 범한 그것——“부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녀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다시 그녀의 친척을 저주했다가는 Weinbrot의 말대로 “결국은 그 자신과 또한 神과 억지로 화해하는(finally makes a grudging peace with himself and his God)”<sup>64)</sup>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서술자의 자기 모순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난점은 서술자가 엄연히 Alexander Pope와 같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술자의 위치를 작자와 너무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57) See pp. 78-79.

58) *Twick*. II, p. 357.

59) 1729년에 Dr. Greene이란 사람이 이 비명부분에만 C 短調의 canon曲을 붙였다고 한다. —*Twick*. II, p. 357 and n. 6.

60) E-C II, p. 209.

61) p. 267 (See Note 45).

62) E-C II, pp. 200-01 (See Note 25).

63) *Alexander Pope* (Cambridge, 1976), pp. 66-78.

64) pp. 260-61.

이러한 해석은 독자와의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것은 다시 이 시의 내적모순에 의하여 조성되는 독자반응을 약화시킨다는——이 시의 본래의 의도와는 상치되는——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독자를 유도하는 “함정”의 작품들이 사용하는 가장 혼란 방법은 처음에는 작자의 분신(surrogate)으로 작용하였다가 나중에는 독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자의 분신처럼 되어버리는, 말하자면 변신하는 서술자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Swift의 *A Tale of a Tub*와 *On Poetry: A Rapsody*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Pope의 *An Essay on Man*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서술자와 동화되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리는 독자는 “Elegy”의 상황을 객관화시키려고 함직하다. 이리하여 이 시의 18, 19세기 독자들은 “부인”의 실재성을 가정하였고 Weinbrot와 같은 비평가들은 서술자를 persona로 가정하였을 것이다. 18, 19세기의 독자가 “부인”의 상황을 狂想的 기미를 띤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면 Weinbrot도 그의 이른바 persona가 “부인의 자살에 대하여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may be partially responsible)” 그녀의 연인이라고 상상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persona는 그의 말대로 “아마도 부인이 그녀의 숙부가 택해준 남자와 결혼하기 보다 차라리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다른 남자인 연인이었을 것이다(is probably the alternative lover for whom she would rather die than marry her Uncle's choice).”<sup>65)</sup> 연극적인 장면을 방불케 하는 “Elegy”의 첫머리에서 서술자는 독자의 분신으로서 “고개짓하는 유령(beck'ning ghost)”에게 질문을 퍼붓는다. 전통적으로는 그러한 유령은 Hamlet의 亡父의 혼령처럼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구실을 하지만 “Elegy”의 유령은 물음에 조차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발되는 질문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곧장 그들을 시적인 상황 속으로 끌어드림직한 것들이다.

“Elegy”가 쓰여질 무렵의 다른 작품들로 보건대 Pope는 예술과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Alice-in-Wonderland적인 도치 내지는 부조리에 매혹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령 *The Rape of the Lock*에 있어서 현실적인 Arabella Fermor양의 경험은 시의 주제가 됨으로서 그 의미적인 “완결(closure)”을 성취하고 다시 시적인 Belinda의 경험은 그녀의 머리타래가 詩神만이 볼수 있는 성과로 변신한다는 시적인 허구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적인 완결을 성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한한 상상적 허구와 종결의 되풀이에 의하여 이 시는 언제나 의미적으로 “열려있는” 구조로서 남게 된다. *Eloisa to Abelard*에서는 허구적인 서술자가 “Let him [some future bard] our sad, our tender story tell”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현실적인 시인인 Alexander Pope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시적인 허구를 창조해줄 것을 현실적 시인(Alexander Pope)에게 부탁하고 있다. 마치 인생의 모방이 예술이 아니라 예술의 모방이 인생인 듯, 그리고 예술이 인생에 선행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Elegy”에서 놀랍게도 역전된다. 왜냐하면 시인 자신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무상한 존재이지만 그의 불멸한 예술의 주제가 됨으로서 무상한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신념이 이 시에서는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Poets themselves must fall, like those they sung;

Deaf the prais'd ear, and mute the tuneful tongue.

Ev'n he, whose soul now melts in mournful lays,

Shall shortly want the gen'rous tear he pays;  
 Then from his closing eyes thy form shall part,  
 And the last pang shall tear thee from his heart,  
 Life's idle business at one gasp be o'er,  
 The Muse forgot, and thou below'd no more! (75~82)

시인들은 쓰러지리, 그들이 울던 아들처럼,  
 칭찬받던 귀는 듣지 못하고 가락맞던 혀바닥도 소리없으리.  
 지금 슬픈 노래로 마음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도  
 곧 그 자신이 지금 흠뻑 쏟아내는 것과 같은 눈물을 바라리라  
 그젠 그의 단치는 두 눈에서 그대 모습은 사라지고,  
 마지막 고통이 그의 마음에서 그대를 떼어내리.  
 부질없는 인생사도 단 한번의 큰 숨으로 끝나나고,  
 詩神이 잊혀지니 그대를 사랑하는 자 더 없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부인”의 정체란 서술자의 환상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하나의 허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부인”의 그 “칭찬받던 귀(rais'd ear)”<sup>66)</sup>와 시인의 “가락맞던 혀바닥(tuneful tongue)”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서술자가 시인의 구실——이것만이 그의 “부질없는 인생사(life's idle business)”의 가치를 입증하여 준다——을 다하고 “부인”을 상상적으로 창조해내는 한에 있어서만 서술자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시인은 그의 창조행위를 통해서만 창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Weinbrot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연 이 시인의 죽음과 함께 “Elegy”도 스스로 소멸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sup>67)</sup> 그렇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서술자는 persona 내지 작자의 분신——Weinbrot는 이렇게 보고 있다——이라기 보다는 독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는 “Elegy”에 대한 강렬적인 반응을 통하여 단순히 지면 위의 인쇄된 활자상태로부터 그 자신이 읽는 하나의 시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convention을 사용하여 강렬한 반응이라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주제를 “Elegy”는 천명하는 동시에 그 문체 속에서 육화시키고 있다. 강렬한 반응은 예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시 예술은 인생의 가치를 입증한다. 그리고 예술은 창조의 산물인 동시에 창조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Elegy”의 주제를 이렇게 추상하면 그 화려한 수사적 구조에 비하여 초라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나 <부조리>의 표현 자체가 그 총체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이 작품의 역동적인 구조에 있어서 주제는 오직 그 미약한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명심하여야 한다.

“Elegy”는 하나의 靜態의 작품, 不動의 기념탑은 아니다. 그것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술은 창조의 산물인 동시에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불운한 부인을 추념하는 비가)”의 “memory(추념)”는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l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Elegy”를 읽는 독자의 의식 속에서

66) 그러나 Tillotson은 “ear”와 “tongue”을 다 같이 시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See *Twick*, II, p. 368, n. 76.

67) p. 266.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열적인 반응, 정열적인 환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Tillotson은 “...in the eighteenth century at least it was in the interests of the poem that it should be believed to spring from an actual sorrow”<sup>68)</sup>라고 말했거니와 19세기의 중엽까지도 많은 비평가들과 독자들이 “부인”의 실재성을 믿었다는 것은 이 시에 있어서 Pope의 의도가 완전히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경험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다.

---

68) Twick. II, p. 355.

